



## “세종의사당 설치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긍정적”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서 “헌법은 국회(본원) 세종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 당장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본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논의가 이뤄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편익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다.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본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간의 협치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전시와 충남도 속원인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시도가 지정됐는데 대전충남만 제외됐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느냐?”라는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세종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충청권의) 강력한 열망이 있으며 해당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질문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향후 충청권의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복 기자



“수험생들 그동안 갖고 뒀던 역량 발휘” ... 한남대 정시모집 미술실기고사

고 뒀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날 실기고사에는 미술교육과, 융합디자인전공, 회화전공에 응시한 수험생 총 160명이 정물소묘,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사과의전환, 정물수채화, 수묵담채화, 인물수채화, 상황표현 등의 종목에 참여했다. 한편 한남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체육실기고사는 10일 열린다.

8일 한남대학교 제2체육관에서 진행된 '2020학년도 정시모집 미술실기고사'에서 수험생들이

같이 참여했다. 이날 실기고사에는 미술교육과, 융합디자인전공, 회화전공에 응시한 수험생 총 160명이 정물소묘,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사과의전환, 정물수채화, 수묵담채화, 인물수채화, 상황표현 등의 종목에 참여했다. 한편 한남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체육실기고사는 10일 열린다.

## 충남도, 신성장동력 산업 10년 간 7조 8300억 원 투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육성 · 특화산업 육성 · 인프라 구축 등 중점 추진

충남도가 미래자동차와 바이오, 수소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10년 간 7조 8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를 발표했다.

충남의 현실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정리한 이번 전략산업과제는 ▲충남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고 ▲이웃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을 선점하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10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단위 사업들이다.

전략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자립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수소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남 실감콘텐츠 R&BD클러스터 구축 ▲해양생태자원 활용 해양신산업 육성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10개다.

바이오 미래 신산업 육성 과제 중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에 마이크로바이옴 균주 발굴 등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바이오 헬스와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1226억 원을 투입, 차세대 의료기기 유휴빌리터지연센터와 정밀의료 융합기술연구원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분향사로 연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도가 발표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일원에 해양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육성과 인적 양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2928억 원이다.

수소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당진시 일원에 ▲통합에너지 그리드 실증도시 구축 ▲수소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조성 ▲바이오 가스 이용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며, 투입 사업비는 4조 4355억 원이다.

충남 실감콘텐츠 R&BD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클러스터 구축은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2024년까지 556억 원을 들여 콘텐츠 분야 지원 기관 집적화 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과제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

성 과제는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벨트 구축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구 장항제련소 국제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세부 사업으로 담았다.

10대 전략산업과제 추진을 위한 연도별 투입 예산은 지난해까지 1389억 원, 올해 2633억 원, 내년 5747억 원, 2022년 8166억 원, 2023년 이후 6조 4149억 원이다.

도는 이번 전략산업과제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 5개 TF로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정기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환류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미래 전략산업과제는 국가 정책을 선점하고 충남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이라며 “각 과제가 계획에 머물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보령댐 가뭄 해소... 용수공급 정상으로 회복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가뭄 '경계단계'로 관리하던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의 가뭄상황이 8일 해제됨에 따라 이들 댐의 용수공급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보령댐 유역은 1월 6일부터 이틀간 약 76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예년 1월 총 강수량인 23.1mm의 3.3배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1월 8일 5시 기준으로 40%(4,650만 톤)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26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하여 가뭄해왔던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중단하고, 지난해 7월 24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여 댐에서 공급을 중단

했던 하루 2만 7천 톤의 하천유지 용수를 1월 8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한다.

한편, 1월 8일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20개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33%, 14개 용수전용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44%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박준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보령댐의 가뭄상황을 피해 없이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도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국민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댐을 철저히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안전사익회 인터넷 생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  
 안전사익회는 시민의 희망을 담은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 제228회 입시회

기간 : 2020. 1. 16. (목) ~ 1. 20. (월) / 5일간

**주요안건**

- 2020년 주요업무실천계획 청취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의회방청안내**

- 기간: 회기 중
- 장소: 의회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521-2530)

천안시의회  
www.chonansingov.go.kr



# 文 정부 출범이후, 국민 10명 중 5명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

## 여의도연구원 신년 국민 경제인식 여론조사

### “보수·중도 모두 文정부 경제정책에 부정 여론 압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10명중 5명은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24명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이 신년 2~3일 전국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국민인식 진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47.3%를 기록, ‘좋아졌다’(24.2%)보다 두

배로 나타났다. 16개월 전과 12개월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확대된 것이다.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30.0%에 그친 반면에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40.6%로 월등히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월간 경제정책을 수·우·미·양·가로 나눠 종합평가한 결과 수(아주 잘함) 14.0%, 우(잘함) 19.9% 등 긍정적인 평가는 33.9%로 나타났다. 반면 양(못함) 16.7%, 가(아주

못함) 30.0% 등 부정적인 평가가 46.7%로 더 많았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 평가는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49.9%로, ‘잘하고 있다’(32.6%)보다 1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꽃인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27.4%이 불과한 반면에 보완·수정·폐기 형태의 반대 의견은 68.4%나 되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대3.1이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2%포인트다.

국회=김성규기자



오세현 시장, 염치읍 방현리 어르신 애로 청취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이 새해를 맞아 8일, 염치읍 방현리 경로당을 방문해 신년인사와 함께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염치읍 방현리 경로당은 2층 경로당, 1층 이전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개선의 시발점 되고 있다. 염치읍 방현리 유재호 노인회장과 주민들은 경로당편의시설개선에 힘써 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이어갔다.

## 당진시의회, 새해 첫 의원출무일 운영

### 당진시 6개 부서 9건에 대한 현안보고 받아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8일, 새해 첫 의원출무일을 정상영 부의장 주재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 정상영 부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20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당진시의회는 올 한 해에도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17만 당진시민들의 대변자이자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2020년에도 당진시에는 해결되지 않은 다수의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의회와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살고 싶은 당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이날 의원출무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건주처리현황, “2030 당

진의 미래를 그리다”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과 소관의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추진 ▲기업지원과 소관의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부품 장비 기업 육성사업 ▲자치행정과 소관의 당진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청구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추진, 쌀 직불제 목표 가격 결정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7기 지역보건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 6개 부서 9건에 대한 당면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윤찬수 아산부시장, 시정 파악 행보 이어가

### 첫날 홍보담당관실, 창의적 콘텐츠 시정홍보 강조



제18대 아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윤찬수 부시장의 시정 현황 파악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윤 부시장은 발 빠르게 취임 3일 만인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아산시 52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과제 및 연초 추진업무 보고를 청취 후 대책방향을 논의 중이다. 윤 부시장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7일 오후 홍보담당관이다. 오해근 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 후 홍보업무에 대한 의견을 상호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부시장은 “현 시대의 홍보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양방향 홍보여야 한다.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로 홍보 조

단체부터 고민해야 하고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유튜브 채널 운영 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윤 부시장은 “홍보의 객체에 맞는 주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젊은 직원들의 끼와 열정을 활용해 시대 흐름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며,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노인정책은 노인 과 상의해야 하듯이 어떻게 하면 많은 층의 구독자가 나올 수 있는 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광주기자

## 초대 민간 대전·세종·충남 체육회장 선거전 본격 접화

올해 처음 민선으로 치러지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각각 3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선거가 본격화했다. 이들은 저마다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최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공약과 전략으로 지역체육관계자들의 표심을 누비고 있다. 대전시체육회는 4~5일 이틀간 체육회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송영호(63) 현충학원(대전 동산중·고) 이사장, 양길모(60) 전 대전북성협회장, 이승찬(43) 계룡건설 대표 등 3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전체육회장 선거일은 오는 15일이고, 유권자는 대의원 312명으로 구성됐다. 투표 방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설치되는 PC를 이용한 투표와 휴대전화로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다. 이정복기자

세종과 충남체육회장 선거도 각각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세종은 김부유(55)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순영(57) 트리플에이파트너스 회장, 정태봉(60) 유진통신공업 대표가 등록했다. 이들 후보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에 나선다. 선거일인 15일 오후 2에는 선관위가 마련한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한다. 유권자 대의원은 200미만으로 6일 결정된다. 지난 4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충남체육회장 선거는 김영범(64) 전 충남도탁구협회장, 박만순(61) 바르게살기 충남도협의회장, 김덕호(67) 전 충남도체육회 부회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선거운동 기간은 5~13일이고, 선거일인 14일 오전 11시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된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의회, 올해 첫 임사회 개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중천)는 8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1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건 8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 주민청구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추진, 쌀 직불제 목표 가격 결정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7기 지역보건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 6개 부서 9건에 대한 당면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시민 행복에 있다며 시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시민 행복에 있다며 시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시민 행복에 있다며 시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유성구 김동수 의원, 유성구 어린이집연합회 감사패 받아



대전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이 8일 유성구 어린이집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유성구 어린이집연합회 이동영 회장은 “김동수 의원은 평소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특히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육사업부흥을 위해 기여한 공이 커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동수 의원은 “사회도시위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육인들의 권익증진과 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환기자

김정환기자



##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발표

### 황중현 충남도 산업 건설정책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황중현 충남도 산업·건설 정책특별보좌관이 8일 오전 9시 30분 천안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5일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중현 특보는 이날 출마기자회견에서 “저는 92년 이십 대 중반에 패기와 젊은 도전정신으로 천안에 왔고 천안과 함께 크고 천안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해왔다”며, “이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축적된 경험을 다독여 더 큰 헌신과 봉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황중현 특보가 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천안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황 특보는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천안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통솔력 있는 리더십”이라며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천안을 68만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승리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공약에 기여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황 특보는 주장했다. 그는 “저 황중현이 민주당의 보궐선거 책임론을 극복하고 천안을 지켜낼 필승 신병기”라며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



계 지지를 호소했다.

황 특보는 “천안시가 충남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볼 때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동시 석권은 2022년 대선에서 충남 승리의 핵심전략”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 총선승리와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중현 특보는 2년 임기의 시장인 만큼, 당선되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정혁신의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

### 정진석 국회의원, 청양군 의정보고회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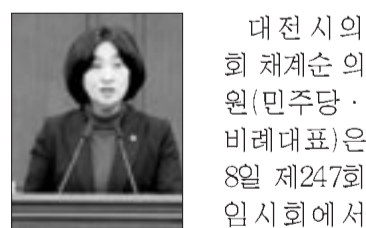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양 출신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과 이석화 전 군수, 이상백 방송인

등 주요 내빈과 1,0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의 힘! 든든한 큰 일꾼! 정진석입니다”라는 주제로 ‘청양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2020년 4천442억원에 달하는 국·도·지방도 5개년 계획 반영 ▲ ‘일발’ 군납(軍納) 확충 ▲ ‘고춧가루’ 군납 가격 50% 인상 등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주요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정진석 의원은 “청양군민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분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청양=정성범기자

## 채계순 의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추가 설치 촉구

### 제247회 임시회 5분발언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2개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나머지 3개구에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계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학교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을 도와줄 곳이 없다는 부정적 생각과 학생들과 유사한 학력, 청년과 유사한 나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다른 취급을 받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업 중단자의 비율은 2018년 기준 16.32%로 서울, 세종, 경기도에 이어 4위로서 학업 중단율이 매우 높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놀이’와 ‘그냥 시간 보내기’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준비’(23.1%), ‘아르바이트’(14.1%), ‘PC방’(6.8%) 순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다수의 학생들은 검정고시 준비 등의 장기적인 목표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목표 외에 단순히 놀거나 시간 보내기 등의 목표 없는 행위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 계획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전시는 현재 세구, 유성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동구, 중구, 대덕구에도 설치하는 동시에 센터를 활성화 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에 주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재학생이 제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대전시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구에 빠른 시일 내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 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 예타 10→7개월로 단축”

## “예산 62% 상반기 집행… SOC·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62%는 상반기에 집행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 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관련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장애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투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파급 영향 대응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의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지정불안이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3P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과제는 최대한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대응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입법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출연연·과기원 과학논문 154편에 미성년 저자

### 연구자 자녀 논문도 17편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내놓은 논문 가운데 미성년 저자로 등록된 경우가 154편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연구자의 자녀 10명은 모두 17편의 논문에 연구자와 함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출연연·4대 과

기원 발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과기원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월부터 이들 논문이 (대학) 입시에 이용됐는지,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측은 “현재 기관 차원에서 1차 조사와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과기부에서 1월부터 연구 윤리점검단을 구성해 해당 기관의 검증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조사해 21명이 이런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태선 기자

## 우리 국민 45% “안철수 정치노선, 잘 모르겠다”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안철수(사진) 전 의원의 최근 정치노선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가장 다수였다.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팽팽했다.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보수적 34.4%, 중도적 17.1%)과 대전·세종·충청(보수적 32.8%, 중도적 14.3%), 경기·인천(보수적 27.1%, 중도적 20.0%), 대구·경북(보수적 26.9%, 진보적 15.0%), 광주·전라(보수적 24.1%, 중도적 16.7%), 부산·울산·경남(보수적 22.3%, 중도적 17.8%), 연령별로 40대(보수적 43.6%, 중도적 12.5%), 50대(보수적 30.9%, 중도적 17.3%), 30대(보수적 28.3%, 중도적 19.9%),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보수적 45.4%, 진보적 9.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보수적 36.7%, 중도적 8.2%)과 정의당(보수적 34.2%, 중도적 19.0%) 지지층, 무당층(보수적 25.5%, 진보적 15.7%)에서 가장 다수였다.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보수층(중도적 23.7%, 보수적 18.2%)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중도적 28.5%, 보수적 18.1%)에서 가장 많았다.

20대(보수적 22.4%, 중도적 21.0%)와 60대 이상(보수적 19.4%, 중도적 15.6%), 중도층(보수적 22.5%, 중도적 25.4%)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응답률 제외)을 확보한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정복 기자

# 대전충남병무청 ‘병역명문가’ 운영

### 일제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노동엽)은 2020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제 17회를 맞이했다. 2019년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411가문(병역이행자 총 2천여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했다(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사립). 또한,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한 국광복군 및 참전유공자 등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중점적으로 찾아 국권회복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 명예심을 드높일 계획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확인서 등을 갖추어 병무청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한다.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6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나라를 이어나가는 나라사랑의 귀감을 보여 주신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부여군 지부 최종 승인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양승조)는 최근 부여군장애인체육회(회장 박정현) 지부 인준 서류를 검토, 최종 승인과 함께 도내 15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 단독 지부 설립을 모두 완료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로서 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서산시장애인체육회 지부 인준을 시작으로 11년 만에 도내 전체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도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네트워크 구성을 마쳤다.

전국 226곳 지자체 중 장애인체육회 지부가 설립된 곳은 113곳으로 평균 50% 수준이며 일부 시·군·구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체육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단독 지부 운영을 통해 13만 명에 달하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지역맞춤형,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 단독 지부에서는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배정하는 시·군별 사업을 지역 현황에 맞춰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내 단독 지부 100% 설립을 완료했다”며 “도 장애인체육회와 15개 시·군 지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도병수 변호사,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천안시의 자유한국당 소속 도병수 변호사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도병수 변호사는 8일 천안시 청 8층 브리핑 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을 천안답게, 품격 있는 천안시대를 열겠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도 후보는 “전임 시장과 도지사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출마의 심정을 밝혔다.

도 후보는 “고향 천안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오면서 천안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천안시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만 큼은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어느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닌 저야말로 사심 없이 소신껏 천안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천안시민의 편안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천안 원도심과 신도시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성장하며, 아이는 즐겁고 엄마는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도 후보는 “정치권의 패거리 노릇에서 자유로운 정치적으로 빛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인으로서 전문성과 경험, 능력을 살려 천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명절 선물은

# 서산시가 보증하는

## 서산뜨레 농특산물로!



**삼계**  
☎ 041-667-5884



**사과**  
☎ 041-672-0858



**서산건강향과**  
☎ 041-667-7004



**동부기와 함께 자란 쌀**  
☎ 041-663-3569



**6년근 인삼-홍삼**  
☎ 041-663-9700



**동기름-참기름**  
☎ 041-662-6377



**조청**  
☎ 041-662-7055



**어러굴갓-갓갈래떡**  
☎ 041-669-1290-1



**서산한우**  
☎ 041-665-8006



**100% 믿음과 신뢰로 드리는 서산뜨레**

서산뜨레는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입니다.  
www.seosanttare.com T.041-660-3068



● 특 정 ●●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9일 오후 5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힐탑교회에서 열리는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삼성동·홍도동 연두방문



황인호 동구청장 =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동, 홍도동 연두방문에 나선다.

중구통장협의회 정기총회



박용갑 중구청장 = 9일 오전 10시 30분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중구통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연두순방



장종태 서구청장 =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수동, 도마2동, 도마1동으로 연두순방에 나선다.

2020 주요업무 보고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 9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20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

목요 현장데이트



박정현 대덕구청장 = 9일 오후 2시부터 평촌동 외 6곳에서 주민과의 목요 현장데이트를 한다.

주민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 27일까지 정보 격차 해소 및 실생활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도 무료 주민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컴퓨터 기초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 등 12개 과정을 2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은 컴퓨터 기초과정과 스마트폰 과정의 경우 전화 ☎ 042-251-4099로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과정은 평생학습과 홈페이지(www.donggu.go.kr/ll/)를 통해 신청해야만 하고 과정별 선착순 30명까지 모집해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보화교육 모든 과정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더 밀착하고 유익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차별 없는 정보화교육을 제공해 세대 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진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노인일자리 ·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중구, 지난해보다 33%증가한 148억여원 확보... 4,256명의 노인이 일 하게 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4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보다 572명이 늘어난 4,256명의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지원, 방문노인상담, 도시철도 안전도우미, 환경지킴이, 전통시장 서포터즈, 새싹보육도우미 등에 전체 참여자 중 82%가량이 참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7개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대전시 연합회, 보문복지관, 기독교복지관, 중구시니어클럽,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41개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된다. 또한 일자리사업은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을 띤다.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형 사업에는 청소년이동지킴이,

담, 도시철도 안전도우미, 환경지킴이, 전통시장 서포터즈, 새싹보육도우미 등에 전체 참여자 중 82%가량이 참여한다.

작업지원으로 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형 사업에는 시니어택배, 학교·새싹급식 도우미 등이 있으며,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노인복지·다문화 복지 시설 도우미가, 구인·구직을 돕는 ▲취업알선형 사업에는 7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많은 참여자가 활동하는 공익사업 활동은 지난해보다 근무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났고, 올

해부터 시작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관개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힐찬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발대식은 8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박용갑 청장은 "건강, 수입, 천구까지 얻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노인복지관 '사랑의 의료봉사' 실시 유성노인복지관(관장 박명래)은 지난 7일 오후 복지관 2층 취미교실에서 대전봉사체협교실 후원으로 '사랑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대전 총총외과 김찬기 원장의 재능기부로 35명의 어르신들에게 링겔을 투여했다.



직·공장새마을운동대덕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직·공장새마을운동대전대덕구협의회(회장 김호현)는 지난 7일 대덕구새마을회관에서 대의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2019년 세입, 세출 결산(안)과 2020년 사업? 및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전목향로타리클럽, 어린이재단에 바자회 수익금 전달

## 후원금 100만원 전달받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 본부는 8일 대전목향로타리클럽으로부터 신혜경 회장과 김숙자 처차기총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달 11일 대전목향로타리클럽과 대전대명로 타리클럽이 공동주관한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으로 대전목향로타리클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국제로타리클럽 소아마비재단에 수익금을 기부하고 남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탁했다.

## "공중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중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정상기동 확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10일까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정상기동 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사항은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상태 ▲안심비상벨 정상기동 여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중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공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위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민공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4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6개소 공중화장실 전체에 안심비상벨 122개를 설치했다.

비상벨은 공중화장실별로 2~7개씩 여자화장실 좌변기 옆에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입구에 경광등이 함께 있어, 위급상황시 벨을 누르면 사이렌과 함께 경광등이 작동하며 곧바로 관할 경찰지구점 검사를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상태 ▲안심비상벨 정상기동 여부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과 확인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 "서구의 변화와 혁신! 구민과 함께 합니다"

장종태 청장, 괴정동 시작으로 23개 동 연두 방문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8일 괴정동을 시작으로 '서구의 변화와 혁신! 구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23개 동 연두 방문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종태 구청장 취임 이후 시금껏 그래왔듯 초심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2020년도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고견(顧見)을 들어 구정에 반영, 동 행정 활력 화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구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발 빠르게 현장으로 나서 '행복동행 대전서구'를 만들기 위한 장종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기도하다.

이날 50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괴정동 연두방문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9년 우리 동 이야기 ▲구 주요 사업 설명 ▲우리 동 3대 희망 사항 발표 및 주제가 있는 구민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구의 기본 좋은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구민들의 신뢰와 이

해를 높이는 한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구정 발전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장종태 청장은 "2020년은 '사랑을 가지'의 중심에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 지향적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는 '신심직행(信心直行)'의 자세로 서구 일천여 공직자 및 구민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며 "변화와 혁신에 노력하여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가시적인 구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시, 오는 2월 28일까지... 올해 상반기 개소

대전시는 '대전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하며,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과 각종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만 5,386㎡이고, 기업이 입주하는 시설은 44개실이며 그 외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우대업종은 대전시의 주력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로봇지능화, 바이오 기능성 소재 관련 업종과 4

차산업 관련인 정보통신기술(ICT)영위 업종이다.

입주가 제외되는 업종은 '도시형 공장' 외의 공장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자 등이다. 입주조건은, 임대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의 2.5%로 증빙 임대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임대비는 3.3㎡당 월 1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수도공평비는 개별 사용분에 따라

실비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기업은 대전시와(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식산업센터는 좋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입주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대전지식산업센터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입지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원도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전은 물론 타 지역의 많은 기업들도 입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덕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민들 복지체감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전 덕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상복, 이하 협의회)가 지난 7일 덕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들은 2020년 경자년의 1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덕암동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거점복지관인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의 공동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상복 위원장은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덕암동 주민들의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 특 정 ●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황선봉 예산군 수= 9일 오전 10시 예산읍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2020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김석환 홍성군 수= 9일 오전 10시 결성면에서 열리는 2020년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에 참석.

세종시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세종시가 올해 정기본 등록면허세 2만 5,046건, 6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정기본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 보다 2,781건(12.5%), 7800만 원(14%)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면허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성수식품부정유통합동단속

세종시는 성수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단속 하며 특별 사법경찰 관계자 등 총 2개반으로 10명을 구성·편성하고, 안전정책과, 보건정책과와 합동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 등을 믿고 농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2019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세종대표 축산물 인삼포크 최우수상



세종시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인삼포크가 '2019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서 한돈부문 종합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인삼포크 진생원은 생산농가부터 가공·유통업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

을 받은 세종시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2010년부터 10년 연속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인삼포크 진생원은 세종시에 기반을 둔 12개 농가 회원으로 구성된 생산농가부터 가공·유통업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

유동·판매되고 있다. 인삼포크는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 공급능력, 청결·위생 관리 등으로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선정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13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명품 축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산물"이라고 밝혔다.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예산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영예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 중인 관제요원 2인이 김장호 예산경찰서장으로부터 군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7일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3월 개소해 운영 중인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치매

노인 및 지적장애 실종자 조기발견, 절도, 재난 등 5대 강력범죄 31건을 포함 383건의 사건·사고를 예리한 관찰력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군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과 경찰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20명이 군 구축구역을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총 654대(생활방범 404대, 여성안심귀갓길 22대, 어린이안전 122대, 주정차단속 28대, 재난·화재 18대, 쓰레기투기방지 9대, 관광지 51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후 CCTV 기능 개선, 범죄 취약지역 추가 설치 등 CCTV 시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도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예산군, 출생아 수 증가 위해 과감한 투자

출산육아지원금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인상 등

예산군보건소가 8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예산군 출생아 수는 2019년 12월말 기준 291명에서, 2018년 총 출생아 수 256명에서 약 13.7%인 35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해 7월부터 출산육아지원금으로 확대해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4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0만원을 각각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을 확대했고 기존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 수도 1.5배 증가했다.

더불어 보건소는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 연령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 횟수를 확대했으며, 10월

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2019년 총 64명을 지원했고 이중 14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현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구 기자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박차

세종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7월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

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지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세종시가 오는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조사대상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1월 7일 이후 세대명부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 모든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우선적으로 통·리장이 개별 세대를 방문하고, 세대전부 부

재 등의 사유로 통·리장의 조사가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조사 후에도 세대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김려수 지치분권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 자료는 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홍주문화회관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2020년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는 '문인화', '서예', '풍물' 등 3개 강좌로 각 20명씩 연중 모집(선착순)하며 2월부터 12월까지 각 주 1회씩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작품 활동까지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수강료는 무료(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주문화회관(041-634-0021, 630-9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강좌 담당자는 "홍성군민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에 군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회전 제한장소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

세종시가 공회전 제한장소를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에서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한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운영계획이며,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공고하고 2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기후와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아이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

태학산 유아숲체험원 외 3개소 조성

천안시가 아이들이 숲을 교실로 삼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4개소 조성을 완료해 올해 3월부터 2개소를 우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직접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태학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에는 청당2공원, 불당2공원, 불당동유적공원에 3개소 조성을 마쳤다.

태학산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영대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반 프로그램은 안내 소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운영했으며, 총 36개 기관, 552회 운영, 1만6544명이 이용했다.

태학산에 이어 문을 여는 유아숲체험원은 청당동에 조성된 청당2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 내 지도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

자연재료를 활용한 빗줄놀이, 짚라인, 나무블럭놀이대 등의 체험놀이 공간과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 안전 시설 및 휴게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꾸며졌다.

체험 프로그램은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뉘어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마다 하루 2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열린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가 계절별,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불당2공원과 불당동유적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은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올해 중 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는 숲 교육이 주는 교육적, 정서적 효과가 실제 연구가 입증되고 유아숲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도심지 내 유아숲체험원을 더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은 자연친화적 숲생태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성, 독창성, 탐구 능력 등을 키운다"며 "체험원이 산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는 물론 인성·정서 교육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무료상담 종합민원실에서 통합 운영

편의 향상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상담실 조성·통합 운영



천안시가 제공하는 무료상담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상담실에서 통합 운영된

다. 시는 시민들이 쉽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각종 시책, 혜택 등을 알 수 있도록 무료상담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무료상담은 각 부서의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나,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상담실을 조성하고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분야

는 생활법률(예산법무), 건축(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건축디자인과), 개발행위(허가과), 3개 부서가 4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세부 일정은 생활법률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운영되며, 건축은 첫째·셋째 주 화요일, 주거복지 첫째·셋째 주 수요일, 개발행위는 첫째·셋째 주 목요일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일정에 맞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말 무료상담 담당 부서들과 상담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종합민원실 내 무료상담실 따듯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명 설치 및 화분 비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홍규 자치민원과장은 "시민들이 힘들게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민원실 내 무료상담실에서 전문가를 만나 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작은 관심과 소소한 아이디어만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천안시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5488건, 1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 대비 동남구 5.4%, 서북구 4.4% 증가한 수치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

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

에서 6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64)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유관순체육관 '스마트경기장' 조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경기장'으로 바뀌어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으로 바뀌어 화제다.

천안시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단장 신형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유관순체육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해 상황관리와 재난 시 대피 등의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현대캐피탈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은 지난해 8월 문체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주관한 스마트경기장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총 8억원(천안시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각각 1억5000만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국비 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했던 광고판 대신 가로 50미터 길이의 LED 전광판을 설치해 기존 2개의 메인 전광판과 새로운 전광판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통합 운영되는 전광판에는 프로레전트 기술을 활용한 선수 소

개와 경기 주요 장면, 경기 기록 등이 실시간으로 표출돼 관중들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시간 데이터와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관중 참여 이벤트와 누리소통망(SNS)을 원 참여 게시물 등이 전광판으로 송출돼 팬이 직접 참여하는 차별화된 배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음향설비가 교체되면서 관중들의 경기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팬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배구특별시 천안 발전에 힘쓰고 있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 감사하다"며 "천안시는 구단이 2019~2020 시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1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세무과 ☎041-521-4155, 서북구청 세무과 ☎041-521-61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도(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한편 선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직무교육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 9일 오전 9시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리는 2020 토목분야 공무원 직무교육에 참석.

동계 워크숍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9~10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

천안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신청하면 10%할인

천안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은 총 9만 5669대(270억8600만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선납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세무과 ☎041-521-4155, 서북구청 세무과 ☎041-521-61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도(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한편 선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두정도서관, 1월

'시작반갑다! 2020' 행사운영

천안시 두정도서관(관장 문현주)은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시작'을 주제로 '반갑다! 2020년'이라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작'과 관련된 추천도서 전시 및 목록 제공은 물론 추천도서를 읽고 책 속의 감동을 손글씨로 표현하는 독후행사를 연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층 로비에서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자신만의 소망과 목표를 담은 책제목 카드에 적어 달아보는 '책제목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새해 목표' 행사를 운영한다.

2층 로비에서는 28일까지 '신명복의 연약: 처음처럼'(신명복 글·그림, 들배출판사) 서화전을 선보인다.

테마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1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6세 이상 가족 10명(1팀2~3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새해 쥐, 시(時)로 시작해요!' 특강이 준비됐다. 참가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lib.do)에서 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1000원이다.

테마 특별 공연으로는 21일 오후 3시 '꿈과 희망 담은 책속 속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와 샌드아트 동화, 오카리나, 샌드아트 콜라보, 마술 공연 등으로 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2020 여성신년교례회 개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상선)가 8일 아이비웨딩홀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아 '2020 천안여성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천안 여성리더 등 200여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여성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여성과 아동이 행복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천안여성의 화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임상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한 천안여성의 결집과 화합을 당부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여성과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전한 도시환경구축,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4-H연합회

제25대 임원 인준식과 연시총회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천안시4-H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7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임원 인준식과 연시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합회를 이끌어 갈 임원으로 회장에 정병찬씨(36세), 남부회장에 김기태씨, 여부회장에 오혜림씨, 감사에 고선영씨·이송이씨, 사무국장에 김대욱씨, 총무에 방성보씨가 선정됐다. 연시총회는 품목별 청년농업인 모임체 육성 및 발전방안 교육에 이어 신입회원 가입, 4-H연합회 규약변경,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정병찬 신임회장은 "천안시4-H연합회가 지·덕·노·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습득해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 퀸스산부인과의원, 복지재단에 1천만원 후원  
퀸스산부인과의원(병원장 서기원)이 새해를 맞아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해 사후에 달라며 1000만원의 후원금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김갑석)에게 전달했다.



봉명동 소재 명문교회, 학업장려금 매년 150만원 지원  
천안시 봉명동 천안명문교회(목사 임종원)는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 장려를 위해 매년 15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지정기탁하고 있다. 8일에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5명을 위해 학업장려금 150만원(1기정 30만원)을 전달했다.

천안시, 현안사업의 도비 확보 위한 발빠른 대처



천안시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도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당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충남도청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을 방문해 각종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광덕사 진입도로 확장, 천안역사 현대화사업, 전기저장버스 구입 등 총 7건 사업비 212억원으로, 시는 지역 발

전에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서북구 직산읍 관정리 일원 관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ℓ=3339m)에 50억원,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일원 지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ℓ=2.1km)에 54억원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알렸다.

류현환 건설교통국장장은 "충청남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시장과의 대화 가져**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지난 7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항상 구급현장 활동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아산소방서장과 구급대원 12명이 참석해 구급대원들의 현장 활동 중 구급수혜자에게 더 좋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현장 활동 안전사고 방지에방교육으로 진행됐다.



**서천소방서, 한산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서천소방서(서장 최정일)는 8일 오전 한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산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박래 서천군수, 각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하는 김원섭, 박인숙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취임하는 고석우, 김예란 대장을 축하했다.



**현성용, 박정아 공직자 부부, 새해 첫 나눔리더 동시가입**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8일 오전 10시 모금회 사무처에서 2020년 새해를 밝히는 첫 나눔리더 부부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주인공은 동구관입2동 현성용 동장과 유성구 회남복지자립팀 박정아 팀장.

## 겨울 빙길 운전 주의 당부나서

서산소방서, 블랙아이스도 자주 발생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연이은 비에 따라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가 내린 후 도로에 결빙된 구간이 보이는 빙판길도 위험하지만, 차량 전복 등 큰 사고는 육안으로 결빙구간을 구별하기 힘든 블랙아이스도 자주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 표면의 작은 틈으로 눈이나 습기가 스며든 후 낮아진 기온에 따라 얇게 얼어붙은 부분으로 노면의 물기가 밤새 얼어붙은 아침 시간대나 터널 출입구, 다리 위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넓게 잡아야 하며,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서 시야를 밝게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차량 급조작을 지양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빙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빙판길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희기자

##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양경찰서, 설 명절 앞두고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선박 침입점도 등 민생침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업종·지역간 조업분쟁, 불법 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선박 침입점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에서 행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불법조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은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천식 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정희기자

#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

(한국소비자원) 해외 제작돼 국내 수입·유통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조사 결과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 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 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출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출에 실리곤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입명 '파워 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흡입) 등을 제거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비늘, 소총 드라이버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제거가 가능하고, 흡입 등 부품을 제거한 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해 장착하면 쉽게 제한된 운동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서구,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 및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고발·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가로등·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연구성과 발표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 분석 연구'의 결과,공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가로(街路)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반사경·겨울(미러시트)·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

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법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감률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사원 입문교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천안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73명의 5급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특별강의를 통해 "공사는 111년간 쌓아온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발전을 선도해 왔다." "신입사원들의 역량과 열정으로 농어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고, 농어민에게 신뢰 받

는 직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사원 정우정씨(25)는 "대한민국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업무역량을 갈고닦아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사원 273명은 이번 입문교육 수료 후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받은 뒤 지역 현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 당진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식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소방교 김성연, 소방사 백석현)과 펌블런스 대원(소방사 인승고, 배중욱)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급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 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은 대원들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06시 30분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내용으로, 현장에 펌블런스와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해 펌블런스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실시하는 동안 구급대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해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렸다.

당진=최근수기자

## 대전시, 지난해 화재발생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

전년보다 건수 19.7%, 인명피해 165%, 재산피해 332% 감소

대전시는 지난해 우리지역의 화재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우리지역에서는 모두 878건의 화재가 발생해 71명의 인명피해와 4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건수는 19.7%(216건), 인명 피해는 16.5%(14명), 재산 피해는 33.2%(20억 원)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전국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5% 감소했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7명의 사상자와 6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화재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다.

원인 별로는 부주의가 48.9%(42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31.2%(274건), 기계 4.8%(42건), 원인미상 6.6%(58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꽂이가 38.2%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 중 22.4%(96건), 불씨 방치 11.4%(49건), 가연물 방치 6.5%(28건), 쓰레기 소각 6.1%(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인명피해 71명

중 화재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주의로 36.6%(26명)를 차지했으며, 전기가 18.3%(13명)로 뒤를 이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3.0%(290건)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서비스시설 17.7%(155건), 야외 15.2%(134건), 자동차 11.6%(102건), 산업시설 6.7%(59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태환 소방본부장은 "화재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부주의 화재가 많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 청양소방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 27.9% 감소



분석결과 전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27.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화재발생 건수는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4건 감소, 인명피해 사상자는 총 1명이 발생해 50% 감소, 재산피해는 70.6% 감소한 5억20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 저감에 특특히 기여했다.

주요 예방활동으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동

장단 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화재예방 홍보방송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예방순찰 ▲간부공무원 재난약자시설 등 현장방문 지도 ▲시기별 부주의 화재사례 언론홍보 등이다.

류일희 서장은 "지난해 화재발생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화재발생 요인을 찾아 올해에도 화재발생 저감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민기자

## 아산시보건소, 겨울철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아산시보건소보건소장 김은태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맞아 개인 위생준수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통

상적으로 음식을 섭취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 익혀먹기(특히 굴, 생선, 조개 등 수산물) ▲물 끓

여 마시기 등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3일까지 공동생활을 금하고, 환자와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을 소독해야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 20~30대 대학생·직장인 40% “공무원 시험 보겠다”

## 2020년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대해 설문조사 결과

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2,2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응답은 취업준비생의 경우 58.7%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대학생은 47.5%였다. 직장인도 30.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1.1%, 30대가

39.4%였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2030 공시족 비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2016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20~30대 공시족 비율은 38.8%였으나 올해 44.4%로 5.6%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취업준비생 공시족 비율이 41.5%에서 58.7%로 17.2%나 뛰었다. 대학생은 4.0%(43.5%→47.5%), 직장인은 0.7%(29.6%→30.3%) 각각 올랐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주요 이유(복수응답)로 '정년보장'과 '복지·근무환경'을 들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라는 답변이 75.1%로 가장 많았고 복지·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39.4%),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36.5%), 정시 퇴근할 수 있어서(27.8%), 공무원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13.4%), 출산·육아휴직 사용이 일반기업에 비해 수월해 보여서(11.4%) 등의 순이었다.

준비하는 시험 중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74.3%로 높았고 7급 공무원 시험(13.3%)이 뒤를 이었다. 시험 준비(복수응답)는 '온라인 강의로 한다'는 응답이 74.8%였고 독학(34.2%), 오프라인 강의(27.4%) 등이 뒤를 이었다.

시험을 위해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은 5.2시간으로 집계됐다. 20대는 평균 5.8시간으로 30대 평균(4.6시간)보다 길었다.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도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대 2년'이라는 응답이 43.0%였고 다음이 최대 3년(25.5%)이었다. 합격할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답은 17.4%였다.

공시족들은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으로 치열한 경쟁(58.6%), 공부하기 어렵고 잘 안 된다(48.5%), 시험 기회가 적다(32.1%), 채용 규모가 적다(30.2%) 등을 꼽았다.

이정복기자

대전시교육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 ‘감성충만 겨울방학 수학캠프’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성충만 겨울방학 수학캠프'를 운영한다.

감성충만 겨울방학 수학캠프는 지난 7일 대전수학체험센터에서 체험·탐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향상과 수학 학습에서의 성공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생과 중등학생으로 나누어 각각 3일씩 진행된다.

초등캠프에서는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나는 수학 교구 탐험, 스트링아트 체험, 여러 가지 숫자 퍼즐 풀이, 4D 프리임을 이용한 수학 구조물 만들기, 수학보드게임 등 다양한 수학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경험하는 흥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대전수학체험센터를 수학탐구열기로 가득 채웠다.

중등캠프에서는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나는 수학 교구 탐험, 스트링아트 체험, 여러 가지 숫자 퍼즐 풀이, 4D 프리임을 이용한 수학 구조물 만들기, 수학보드게임 등 다양한 수학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경험하는 흥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대전수학체험터를 수학탐구열기로 가득 채웠다.

김정환기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문 열어

### 서천교육지원청 위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은 7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리모델링 개소식을 가졌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서천교육지원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업무와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1층에는 교육지원실과 상담실, 영유아실 및 직업전환실이 있으며 2층에는 교수학습실, 진단평가실, 스마트 교실이 마련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단평가를 위해 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힘을 썼으며 상담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신경썼다.

## 마을학교·마을교사 사업설명회 열어

### 천안교육지원청, 마을교사 사업에 관심 있는 천안시민 대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8일 5층 대회의실에서 2020 천안 행복교육지구 무지개마을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사업에 관심 있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두 사업은 2020 천안 행복교육지구 핵심 사업으로 무지개마을학교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돌봄, 봉사, 체험, 문화, 예술, 생태교육 등 교육활동을 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대상 공모사업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는 관내 기관(단체) 소속 마을교사 또는 개인을 선정해 학교와 매칭 후 수업, 동아리활동, 행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이다. 천안시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두 사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시작했으며 오늘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관련 공모계획서 작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가경신 교육장은 "이번 공모로 발굴된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계한 활발한 교육활동으로 발전시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행복한 아이들, 나아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천안=이정복기자

##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방학특별과정 입학식

### 공주대, 재외동포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 기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권)과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원장 박후버트)은 지난 7일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재외동포 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19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방학특별과정(겨울)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 행사는 먼저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수학준비과정 II, 한국이해(겨울과정) 대표 학생의 사회로 프로그램 소개 및 환영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연수에 참

여하는 14개국, 87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대상으로 재외동포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대학수학준비과정, 한국이해과정, 방학특별과정으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번에 입학한 방학특별과정(겨울) 학생들은 오는 1월 22일까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한국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지내며 한국어·한국문화 역사 이해 교육을 받고, 현장체험학습, 실기 중심의 한국의 전통·현대 문화체험 등 재외동포만을 위해 편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 ‘충남 공교육 공동체’ 밑그림 그린다

### 충남도립대·공주대, 충남대표국·공립대 첫 협약



충남지역 대표 국공립대학교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와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8일 공주대학교에서 허재영 총장과 원성수 총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인재 육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대학은 상호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협력 ▲학생교류 및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 협력 ▲학술정보 공유 등 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공립대학으

로써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력과 세미나·학술회의·심포지움 공동 개최를 통해 대학-지역 사회 간 상생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재영 총장은 "우리 두 대학은 충남을 대표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디지털 혁명을 대비한 창의인재 육성과 지식 플랫폼 연계를 통한 교육 혁신, 지역과 상생하는 지식 자치 등 시대의 현안을 함께 해결해 가자"고 말했다.

이러 "두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식의 공적 가치를 높이고 '공교육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자치 정책 추진 탄력

### 학교운영비 지원 방법 대폭 개선

세종시 학교자치 정책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예산의 편성과 사용권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가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학교의 자치 확대가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일 배부 기준을 대폭 개선한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은 교육청이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학교에 내려 준 각종 사업비를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 목표, 지리적 위치, 시설물 특성 등 각기 다른 교육환경에서 학교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력을 높이고 목표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돕자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여러 정책을 목적 사업으로 정해 연중을 걸쳐 단위학교에 사업 재원을 내려 보내고 학교가 사업을 마치면 잔액을 반납 받는 정산 작업을 학교에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하게 예산이 소비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필

수 목적사업에 대한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목적사업비에서 기본 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은 유치원 숲 교육, 초등저학년한글지도, 학생자치 활성화, 건강체력교실 등 모두 11개로 46억 원 규모이다.

이밖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병설유치원의 원당 단가를 신선했을 뿐 아니라 면지역에 집중된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고교부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이 내야했던 학교운영지원비 16억 8천여만 원도 기본운영비에 반영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신설한 학교 건물 5년을 넘기면서 건물 유지비 명목으로 12억 5천여만 원도 계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는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가 자율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과제를 거듭 발굴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5639억원으로 책정하고 관내 유·초·중·고 150개교에 나눠 교부할 계획이다.

세종=김태성기자

## 호서대, NSLB 학생맞춤형 역량증진 프로그램

### 혁신지원사업 총청권 혁신사례 선정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NSLB 학생맞춤형 역량증진 프로그램'이 2019년 총청권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NSLB(No Student Left Behind)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형 역량증진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호서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1학년을 위한 교양과목과 비교과 시간에 각종 검사와 조사를 받게 된다. 교수는 학생의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학생을 지도한다.

거기서 학생들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를 내게 된다.

성은현 정책부총장은 "NSLB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공모전에 입상하거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앱을 개발한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호서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겠다"고 밝혔다.

호서대의 NSLB 학생맞춤형 역량증진 프로그램은 1월 16~17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201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에서 총청권 대표 혁신사례로서 전국 대학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호서대학교는 지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3년간 약 135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국 농식품 전파할 인재 모집합니다”

###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7개국에 파견... 월 180만원 체재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시장다변화 사업을 해외 현장에서 이끌어갈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아프로, AFLO :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9~10기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8

일 밝혔다.

청년해외개척단은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시장 진출을 해외 현장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수출타겟 시장조사, 신규비어 발굴, 현지영업, 홍보 등 농식품 수출기업과 1:1로 매칭되어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식품무역분야 현장체험형 인턴프로그램이다.

aT는 올해 말레이시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 총 7개국에 120여명의 청년해외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학력·스펙 상관없이 농식품 분야에 관심있는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청년개척단은 현지 속소를 포함한 체제비와 왕복항공권 등 파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수료자에게는 내년도 aT 청년인턴 입사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송병배기자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받는다

## 당진 농기센터, 119개 사업 165개소...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도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남·북부지소,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개선과 행정, 농업, 지도직의 부서 내 시너지를 위한 인사와 함께 3농 혁신의 실현의 새로운 다짐으로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지소·상담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 시작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사업효과 등의 분석 결과는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게 된다.



신청자격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당진시인 농업인 및 농업단체 또는 농업법인으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농가로 기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범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5백만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 농가와 최근 3년 이내 보조를 받았던 단체는 신청을 제한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와 남·북부지소,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한다.

접수받은 시범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현지심사를 2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후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약 3배 증가

아산시(시장 오세현)의 2019년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전년 대비 2.8배로 경증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동안 직장, 학교, 문화소외지역 등 여러 장소와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총 151회를 진행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앞장섰다.

이는 2018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횟수 54건 대비 97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 맞춤형 기획 공연을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공연 취약지역(읍면 지역), 문화정보 취약지역(다문화 가정 밀집지역), 문화 접근성 취약지역(산단지역 등)의 3대 문화예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추진했다.

또한 문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자생적 주민 조직 및 공동체 주도의 행사 기획 및 주관으로 주민 간 화합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공연 및 전시 횟수 증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지역문화 브랜드화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간·계층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문화적자를 해소하고 아산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했다"며, "올해는 문화향유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브랜드화와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바람직한 관람문화와 시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 한남대, 최대 5000만원 자금지원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창업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아이템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사업에 선발된 팀은 운영경비, 사업모형 개발비, 간접 사업비 등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남대는 선발된 창업팀에게 창업공간은 물론 1:1 멘토링(담임멘토, 전문가 멘토 등)과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연계, 자원연계, 시제품 개발지원,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오후 2시 한남대 56주년 기념관에서 대략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6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유성구청(16일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각각 구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접수는 1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한남대 사회혁신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와 한남대 사회혁신원 홈페이지(<http://socialham.ac.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042)538-3030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고용현황 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50%가 일자리 증가

중기중앙회는 2018년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 한 후 1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478개사의 고용 데이터 분석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자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조사결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50%(239개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당 평균 2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LEVL. 3 이상의 A형에서 일자리 증가 기업 비율 72.1%로 가장 높았으며 △B형은 55.7% △C형은 45%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며,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합병증검진 종료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며 합병증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동맥 내막과 위막 두께를 측정해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동맥초음파검사는 808명이 검진해 436명(54%)에서 이상소견을 받았다.

또 만성 신장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미세단백뇨검사는 807명이 실시해 217명(27%)의 유소견 결과가 나타났다.

당뇨합병증 발생을 예견하는 당화혈색소검사는 807명이 검사해 70명(8%)의 이상결과를 보였으며 망막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과검사는 752명이 검진해 120명(16%)의 유소견 결과를 받았다.

보건소는 검진결과에 따라 뇌졸중, 뇌경색, 허혈성심장질환 등 심뇌혈관질환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속관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는 합병증검진 지정병의원을 확대 지정하고 대상자 1,000명을 선착순으로 무료 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뇌졸중, 심근경색 발병과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을 종료했다. 보건소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내과검진 849명, 안과검진 753명이 검진을 마쳤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은 경동맥초음파검사, 미세단백뇨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안과검사로도 지원 검진비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홍성군, 총 5개 개선사업 분야로 1월 31일까지 접수

홍성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 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용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취부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로 대출금은 소모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2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주택에 한정되었던 슬레이트처리사업이 금년에는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확대되어 석면이 함유된 50㎡ 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17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우리/동/네

#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사업 탄력 받나?

## 당진시,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이 완료된 뒤 많은 아파트가 우두동 일원에 들어서고 영화관과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 출퇴근하려는 차량과 시내와 우두동을 오가는 차량들이 몰린다.

이에 당진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도로망 정비 종합계획 구상에 tap동 교차로부터 당진 산업단지 사거리까지의 국도 32호선 약 5.7km 구간에 대한 대체도로를 포함하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따르면 당진-송악 간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총 1,727억 원을 투입, 연장 10.78km 규모이며, 최종 사업 추진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KDI가 수행하게 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업비 반영, 설계 등이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남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노인복지통계 보고서 발간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박차

태안군 자체 노인복지통계로 정확한 노인복지정책 수립 큰 도움



태안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노인복지통계 보고서'를 발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019년 5월 31일 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이번 통계 보고서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고용 ▲복지 ▲연금 ▲건강 ▲영양 등 총 7개 부문 12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태안군 노인(만 65세 이상)은 1만 8,218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중 65~69세가 5,062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가구 중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8%로 5,467가구를 차지했으며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51.6%였다.

노인 만성질환 진료료는 치주질환 진료료가 가장 많았으며, 간질환을 제외한 질환(당뇨·고혈압·관절염·치매 등) 모두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았다.

군은 이번 노인복지통계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3년 주기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태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태안만의 맞춤형 통계인 이번 노인복지통계가 초고령화 현상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군은 ▲노인 일자리 확대(3,476명, 115억 원) ▲안면노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3월 개관) ▲어르신 돌봄센터 설립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232개소)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어르신 환자를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 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

'청양군 출산장려·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모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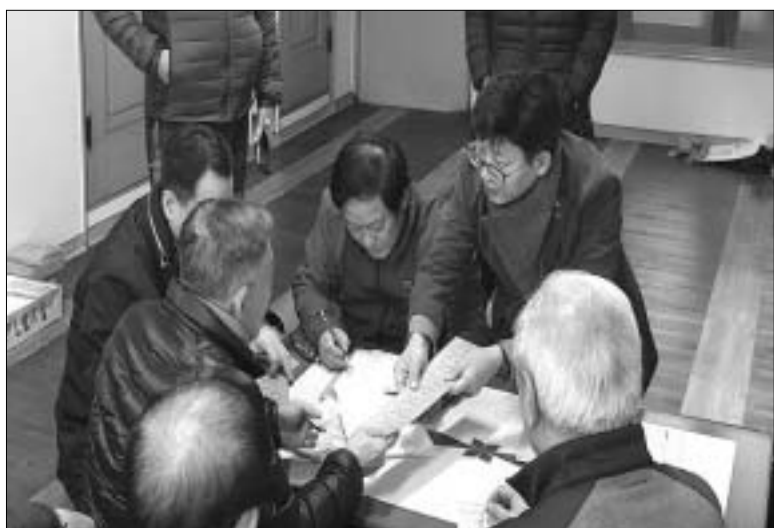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청양군은 이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움비 본인부담금 90%, 큰아 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여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4)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 선장면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경로당 방문 배부



아산시 선장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임승근)는 지난 7일 경로당을 방문한 선장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39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원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으로 2019년부터는 목욕권 단일형, 이미용권 단일형, 목욕 및 이미용권 혼합형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상·하반기에 각 9개월씩 18개월을 제공하며, 아산시 소재 목욕탕 및 미용실, 이발소, 온천수치료 병·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승근 면장은 "목욕·이미용권 배부를 통해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은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선장면 행정복지센터(041-537-3175)에 방문 수령 가능하며, 본인이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하여 어르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아산=리영주기자



## 해안오염방제 훈련 유공기관 표창

당진시, 작년 민·관 합동 해안방제훈련 높은 평가 받아

당진시가 2019년 민·관 합동 해안방제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7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에서 수여하는 '해안오염방제 훈련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안오염방제 훈련은 민·관이 협업해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훈련으로,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석문면 왜목항에서 실시한 민·관 합동 해안오염방제 훈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훈련은 당진시가 처음으로 주관했으며, 평택해양경찰서, 현대제철과 공동 주관해 15개 민·관 기관에서 180여명이 참여했으며, 유조선 연료탱크 파공으로 약 20kℓ의 유류가 유출된 해양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해 5단계에 걸쳐 실시해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김홍장 시장은 "민·관이 합동해 진행한 대규모 훈련인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해안·해양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바다, 청정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는 지난 12월 송악읍 복은리에 방제상황실과 방제물품창고 등을 갖춘 지상 1층, 연면적 180㎡ 규모의 해양오염방제센터를 준공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현장지휘본부 역할 수행과 사전에 잘 활용을 펼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한우연구회 연시총회

회원들간 정보 교류·친환경 축산사업계획 논의



## 청양군 한우연구회 연시총회

회원들간 정보 교류·친환경 축산사업계획 논의

청양군한우연구회는 지난 7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의 우수한 한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회원들간 정보를 교류하는 2020년도 연시총회를 갖고 친환경 축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0여 한우 농가들은 먼저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면서 재무회계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축산물 나눔 행사 개최 등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회원들은 이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부터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대비한 퇴비화 기술,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판별법 및 시료채취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퇴비 부숙도 의무화는 축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직접 처리하는 농가가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기준에 맞는 깔짚 적정관리부터 퇴비시료를 이용한 생산, 검사에 적합한 퇴비 시료 채취방법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회원들은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범사업과 송아지 설사병 간 이진단, 번식우 임신진단 등 축산관리실 소관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균형 산림축산과 담양자료부터 구제역 백신, 조사료 생산 등 축산정책을 소개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올해 군과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회원들과 돈독한 정보교류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천군, 전기·가스 등 합동안전점검반 구성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월 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귀성객 이동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집중되는 △ 버스정류소 2개소, △ 판매시설 1개소, △ 영화관 1개소이다.

군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JB 주식회사 등을 합동안전점검반으로 구성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 주요 구조부의 변형·균열·누수 등 결합, ▲ 전기·가스·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성, ▲ 관계자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서천군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출입제한 등 조치완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가 2020년 새해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나섰다.

올해 농업인실용교육은 변화된 농업정책을 알리고, 농업현안과제를 함께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총 20회에 걸쳐 3,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술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특화작목 중심 품목별 교육과 함께 경영기술자원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벼, 고추 이외에도 부여군 대표 작물인 수박, 멜론, 포도(15일), 은산병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여군 농업의 흐름과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하여 교육뿐 아니라 농업인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10일 오전 남면(농협 2층) 오후 홍화면(회의실), ▲13일 오전 양화면(회의실), 오후 인천면(회의실) ▲14일 오전 장암면(회의실), 오후 세도면(주민자치센터), ▲15일 오전 은산면(회의실) ▲16일 오전 석성면(주민자치센터), 오후 초촌면(회의실) ▲17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등이다.

부여=김성구기자

부여군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2일까지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부터 만5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10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선발된 후계농업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 대출(연 2%), 농신보 보증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기존 3년 거주 7년 분할 상환이었던 상환기간이 2020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 5년 거주 10년 분할 상환으로 늘어난다.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등 혜택이 많은 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부여군 농업 인프라 구축 '올인'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주민들에 주요 농업분야 주요사업 적극 홍보

박정현 부여군수가 오는 15일부터 2020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통해 읍·면 연두순방에 돌입한다. 2020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는 ▲15일 석성면(오전)·초촌면(오후), ▲16일 홍산면(오전)·외산면(오후), ▲17일 구룡면(오전)·내산면(오후), ▲20일 홍화면(오후), ▲21일 임천면(오전)·양화면(오후), ▲29일 남면(오전)·옥산면(오후), ▲30일 세도면(오전)·장암면(오후), ▲31일 규암면(오전)·은산면(오후) ▲2월 3일 부여읍(오전)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군에서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알리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박 군수가 이번 연두순방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새해 부여군 농업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해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여군은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은 주력 산업인 원예농업 육성의 본 바탕이 되는 부여읍, 장암면, 규암면, 세도면 일원 등 대규모 시설단지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가 철분 함유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작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풍부한 금강 수원공을 활용하여 부여읍 현북리 등 6개 지구·1,193ha



의 면적에 정수처리 된 다목적 농촌용수를 공급하는 '맑은물공급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하고 재편하여 지역 수계 간 용수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강과 직접 연결하는 도수로를 신설, 반산지구 및 옥산저수지까지 확장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의 사전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구체화하여 추진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이 완료되면 규암면, 은산면, 홍산면, 남면 등 갈수가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굿뜨레 농산물 품질향상과 유통확대를 기대하는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지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농식품 시장대응의 마케팅 관로 확대 등도 병행 추진하여 농업분야

육성 기반 구축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읍·면 연두순방을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군 주요 시책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청정 농업도시의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을 위한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정부여 123정책'을 펼쳐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외지에서 밀려오는 기업형 축사, 환경과 정주여건을 해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하여 군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정농업의 가치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울러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보전의 개념으로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 지급을 개시했고, 나아가 새해부터는 충남도 전체가 동참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농정협치 기구로서 '농업회의소 설치'를 추진, 농민이 농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요 영농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치 모델을 구현하여 올 상반기 5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서천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열려

군 발전 주민체감의 해 운영으로 군민의 정책체감도 제고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8일 군정대회의실에서 군민평가단과 정책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군정운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약 사업과 가족행복도시 사업, 균형발전 사업 등 핵심전략 사업과 올해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

을 점검·공유하고 분야별 발전방향을 종합 토론했으며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천군은 5대 군정 운영방향을 ▲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역점 추진으로 미래 서천의 발전기반 조성, ▲ 지역 내 차별·소외 없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추진, ▲ 내발적 경제시스템 기반 조성으로 지역 순순환 경제구조 구축, ▲ 다양한 관광자원, 전통문화, 축제로 글로벌 생태문화도시 조성, ▲ '서천군 발전 주민 체감의 해' 운영으로 군민의 정책체감도 제고 등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선교 단장을 비롯한 군민평가단은 "군민의 공감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이고, 주요 정책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박래 군수는 "2020년에는 브라운필드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업유치의 총력 추진, 지역 균형발전과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서천군 발전 주민 체감의 해'로 운영해 군민들이 변화된 서천군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시 "2020년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홍보

올해부터 9만원으로 인상·영화·공연·여행 등 문화생활 지원

계룡시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2020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홍보에 나섰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올해는 지난해 8만원보다 1만원 인상을 1인당 연간 9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6천6백여만원을 확보해

733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카드 발급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동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 여행분야에 가맹점

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6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서천군, 9개 분야 총 731명의 자원봉사자 모집

서천군장애인체육회(회장 노박래)는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서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편의용품 제작과 배부, 성화

봉송, 경기장 안내, 의료지원 보조, 질서유지 등 9개 분야 총 731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박래 서천군장애인체육회장은 "제26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일선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된 문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원봉사센터(041-952-0941), 서천군 도민체전준비기획단(041-950-669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올해도 편안하고 행복한 어르신 복지에 만전

계룡시, 효성택시, 노인목욕비 지원 등 계룡민의 노인 정책 지속

계룡시는 올해부터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하는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던 기존의 6개 유사 돌봄사업을 이달 2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고, 1개 통합 창구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기존의 서비스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으로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과 노인 욕구 대응이 어려워 돌봄사각지대 발생, 돌봄 욕구 미충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은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소하

고 사업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 노인들이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계룡시는 서비스 개편으로 관내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280여명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보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천원효성택시', '노인 목욕 및 미용비 지원' 등 계룡만의 노인 복지도 지속 추진한다.

또 지난해 개소한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보급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중간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9일 오전 10시 화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화양 식량작물·고추)

반에 참석, 오전 10시 20분 장항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화양 식량작물·고추)에 참석, 오후 1시 한산면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한산 농촌여성반)에 참석, 오후 1시 20분 마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0년 열린 군정 정책 공감에 참석, 오후 4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계도형 전기차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주민편의 증진

논산시, 설 명절 맞아 일제점검 나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대대적인 관내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관내 공중화장실 76개소와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3개소에 대해 대청소 및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실 내·외부 살균 소독은 물론 고장,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보수, 배수구 청소, 손 건조기 위생관리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환경정비를 병행한다.

또,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청사 내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한 번기간, 배수구 주변 등 유해가스 검출여부 측정 및 정화조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물레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법촬영 물레카메라 점검 및 물레카메라 설치의심 장소물 확인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청결상태 불량, 시설노후 및 파손사항 발견 시 즉각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시설 내·외부에 걸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과 불쾌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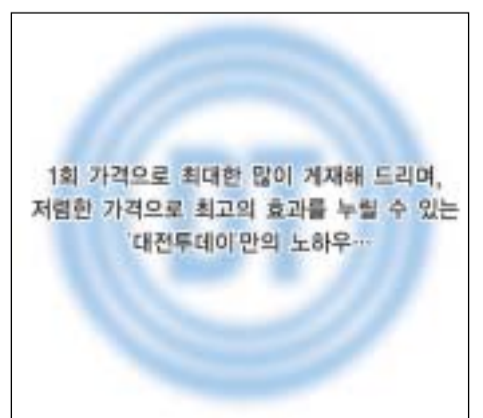


부여군 동계국악강습회 개강식 열려

부여군충남국악단은 지난 6일 부여문화원소강당에서 2020 동계국악강습회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유흥수 부여군 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전통음악의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 육성과 국악 대중화를 위해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본 강습회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습회는 1월 6일~23일까지 3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진행되며, 기악, 소리 풍물, 무용 관련분야 7개반 모두 85명이 강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정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인면, 오후 4시 유구읍을 방문해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민생현장 방문



김동일 보령시장은 9일 오전 9시 20분 주교면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전 10시 오전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오후 1시 20분 대전2동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후 6시 삼광교회에서 열리는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참석.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최식



맹정호 서산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 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NH농협 서산시지부 희망농 나눔 기탁식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에 참석,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립국악원 내포분원유치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대화



문정우 금산군수는 9일 오후 4시 30분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2020년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대화에 참석.

전국교육장 동계워크숍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일~10일 오후 12시에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충남교육장협의회 동계 연수 및 전국교육장 동계워크숍에 참석.

공주시, 시민이 행복한 선도 복지·보건 정책 추진

각 분야별 시정 계획·새 시책 청사진 제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공주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시정 계획과 새로운 시책에 대한 청사진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속 발표했다.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첫 번째 순서로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올해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월송복합문화센터 준공,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전,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다가온' 개소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교육비' 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실현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가족친화도시 재인증으로 공주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였다.

심 국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에도 맞춤형·통합형 복지·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밝혔다.

먼저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 및 청소년 전용카페를 올해 안에 설치, 운영하고, 신관동 옛 KBS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2년 개관하는 등 노인·청소년을 위한 복지·보건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특화사업도 적극 발굴·시행을 위해 육종 등에 여성가족복합문화센터를 2022년까지 건립하고, 경력단절여

하기 위한 보건분야 청사진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도시협의회(KHCP)에서 주관하는 건강도시 인증을 추진해 공주시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치매안심 행복누리센터를 2023년까지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밀도 검사 장비 확충 및 서비스 시행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 집중 지원사업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위한 찾아가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규덕 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선도 복지·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보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확대 운영

금산군, 교통약자 편의제공·안전사고 예방

금산군은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시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운영하던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를 올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안내도우미는 안전한 승하차 보조, 물건 들어주기, 요금결제 도와주기 및 노선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의 정류장 정차시간을 줄여 운행시간 지키기에도 도움을 준다.

군 관계자는 "버스이용객의 대다수가 어르신들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안내도우미 확대운영으로 버스 이용 시 사고예방과 편의의 도모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김정환기자



농산물 판로확보·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시황

서산시, 대형식품기업납품·수출및 온라인 판매 등 판로다변화



서산시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시황을 건다.

시는 올해 농식품유통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나 마늘 등을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식품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 지자체와 결연을 통해 직거래 장터를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해, 유통주체별 분산마케팅 체계를 통합해 능가 조직화, 물량 규모화, 품질 균일화, 시설 효율화 등으로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최근 급성장세인 TV홈쇼핑과 마켓 등 온라인

마켓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 농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 국내 소비시장 타개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대량 수출이 가능한 빅·바이어를 발굴하고, 마주시장을 탈피한 지속적인 해외 프로모션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안전한 지역식재료 공급확대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안정화를 위해, 운영 3년차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95개교 2만 2,000명의 아이들에게 130여억 원 규모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며, 특히 급년에는 어린이집 152개소에 4억여 원의 친환경식재료 차액을 지원해 유치원과 지원 균형을 맞춰 유아들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밑그림 완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소통과 협업을 위한 가칭 '먹거리위원회'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과 먹거리기본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푸드플랜 비전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실행력 높은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개월 늦춰 5월까지 연장하고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농가교육을 통해 조직된 3개 권역 6개 출하점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직매장 등에 납품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납품도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매장, 레스토랑 등이 연계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로컬푸드 선호수요를 충족하면서, 정부지원 사업 유치로 재단법인 형태의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먹거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각 지자체간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조직신설 2년차를 맞아 외부주요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전문 인력을 통하여 다양한 먹거리 이슈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먹거리의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 종합 전략 '푸드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원산지 둔갑 꼼짝마"

공주시, 설맞이 성수품 취급업소 단속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 차단으로 시민생활 보호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한우 선물세트 등 계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판매와 작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등 설 성수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공주 밤, 공주알밤한우 등 지역특산물 단속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처벌할 예정

김동일 시장, 경자년 새해 주민과의 소통행정 나섰다

오는 17일까지 16개 읍면동 및 경로당 등 민생현장 방문



김동일 보령시장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장 철학을 담아 민선7기 시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형식적이고 권의

주요적인 절차를 생략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건의된 주요 현안사업들을 시급 및 파급성, 필요성 등을 부서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에는 오전 주포면과 오후 대천1동을 시작으로 보령경찰서와 보령교육지원청을 방문했으며 ▲8일 대천4동과 보령해양경찰서 및 보령소방서 ▲9일 주교면과 대천2

동 ▲10일 웅천읍과 주산면을 각각 방문한다. 또 2주차면 ▲13일에는 청소면과 청리면 ▲14일에는 오천면과 천북면 ▲15일에는 성주면과 대천3동 ▲16일에는 미산면과 대천5동 ▲17일에는 남포면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복지, 관광,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는 보령의 100년을 주도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시는 올 한 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감동행정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천하는 공감행정,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화없는 참여와 협조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금산군, 갯잎 연매출 4년 연속 500억 원대 달성

금산군은 2016년 최초로 갯잎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한 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4년 연속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다.

2019년 실적은 12월말 기준 9091톤 524억 원으로 2018년 9008톤 517억 원 대비 1.3% 7억 원의 매출이 성장했다.

작년 여름 기온상승에 따른 공급량 증가 대비 수요 감소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으나, 산지 출하작업 부진 및 겨울 갯잎으로의 작부체계

전환에 따른 갯잎 출하 불량 부족으로 3만 원대 가격으로 다시 회복했다. 또한 갯잎 유통 다변화에 따른 해외 수출액 증가와 만인산농협 유통시설 신축에 따른 유통취급량 증가가 매출로 이어져 4년 연속 500억 달성에 힘을 보탰다.

작년 해외 수출 실적은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2억 9822만 원 매출을 기록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갯잎6차산업화에 49

억8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스마트팜구축 지원, 소포장규격박스 지원 사업, GAP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갯잎 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가 있다"며 "앞으로 금산군은 고품질 안전 갯잎 주산지로 전국 최고의 갯잎에 대한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자

2020년 농업인 실용교육 시작

서산시농기센터, 총 2개 과정 13회에 걸쳐 진행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농업리더반을 시작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 핵심기술과 주요 농정시책 교육으로 지역 주산작목의 경쟁력과 농업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대두됐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서 총 2개 과정이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역농업리더반에서는 이·통장,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인원과 생활개선회원 등을 대상으로 농정 현안과제 이해와 농업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창의적 감성농업에 대한 농업경영마인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또 종합반에서는 벼, 마늘, 생강, 고추의 재배기술 등에 관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해결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가

20년 새에 농업인 실용교육(지역농업리더반)



지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형 3층 혁신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농업인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41-660-3692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추진

## 행복청, 출·퇴근 시간대 방향별 교통흐름·교통량 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임동희)는 제13차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교차로 26개를 대상으로 9일(목) 출·퇴근시간대 오전 7~9시, 오후 5시~7시, 총 4시간에 실시하며, 특히, 보

람동(3~2생활권)과 반곡동(4~1생활권) 공동주막 입주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교통흐름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13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교통량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시간 및 차로 조정 등 개선대

책을 마련·시행하여 주요 교차로 지·정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교통량 조사는 진행방향별 로영상을 촬영하여 3방향(좌회전, 직진, 우회전)의 교통량을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네거리의 경우에는 12방향의 교통량을 조사하게 된다. 행복청 김상기 교통계획과장은 "교통량

조사 후 신호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진행과정에 맞추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동아미이스터고 학교 축제 수익금 170여 만원 기부** 동아미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용량)는 지난 7일 대전 동구 자양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2019년 동광축제 총 수익금 172만 2500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동아미이스터고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시행한 '2019 동광축제'의 다양한 부스 운영 및 동아리 수익금을 통해 마련한 금액이다.

## 공주시 '밤 요리 전국경연대회' 개최

전국 12개팀 출전, 누구나 먹고 싶은 공주 밤요리 경연



공주시시장 김정섭(가)이 공주 알밤의 브랜드 향상과 관광 상품화를 위해 알밤의 무한한 변신을 기대하게 하는 전국 밤요리 경연대회를 11일 오후 3시 밤의 고장인 충남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공주시와 인근 청양군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안성, 충주, 대전, 세종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모두 20여 개 팀이 응모했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최종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다.

참가자 중에는 웰빙저널 국제대회, 국제푸드&테이블웨어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 경력을 지닌 조리학과 대학생을 비롯해 마스터셰프 시즌 출전자, 외식업소 운영자 등 다양하다. 올해 경연 주제는 '누구나 먹고 싶은 공주 밤 요리 3코스'로, 밤을 활용한 애플타이저와 메인, 디저트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에게는 7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금상2명에는 50만 원, 은상과 동상에게는 각각 30만,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특별이벤트로 '김정섭 공주시시장의 요리조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김 시장이 축제 및 지역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진행자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공주 밤과 한우를 활용한 크로와상을 만든 뒤 방문객들과 함께 나눠먹는 이벤트다. 조관행 관광과장은 "공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밤정식을 탄생시키는 게 이번 경연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공주 밤의 브랜드 향상과 관광 상품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배재대 김선재 총장 새해 맞아 직원과 소통



김선재 배재대 총장은 새해를 맞아 7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직급별 직원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지난해 배재대가 일군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도약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 선정과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에 직원들의 공로를 치켜세우고 앞으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총장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보면 학생이 성장하는 대학,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 행정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배재대의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선 직원 역량강화 방안과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지난해 부서별 사업 평가도 병행해 올 해 목표 설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용주 총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직원의 역할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준비했다"며 "대학 최고 경영자인 총장과 직원 간 소통을 빈번하게 해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이동장협의회, 2020년 첫 월례회의 개최** 아산시이동장협의회는 지난 7일 2020년 아산시 이동장협의회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맹주철 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588개리·통을 대표해 2020년 이동장협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시장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AT 이병호 사장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기부금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은 지난 7일 나주소재 장애인복지시설 부활의 집과 특수 어린이집인 해뜨는어린이집(사진)을 방문,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 한밭대학교 '2019 실전문제연구단 최종발표회' 개최

진로선택형 산업 및 공공기술 실전문제연구단 주관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6

일과 7일 양일간 충남 보령 비체캠퍼스에서 '2019 실전문제연구단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발표회는 진로선택형 산업 및 공공기술 실전문제연구단 주관으로 각 연구팀의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 활용도 수준 등을 평가하는 자리로 산업문제해결형 15팀, 창업주제형 2팀, 사회문제해결형 4팀 등 총 3개 분야, 21팀이 참가했다. 또한 지난 여름 중간평가이후 진행된 연구성과 최종발표 뿐만 아니라 특허교육과 UCC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하였다. 윤린 단장(기계공학과 교수)은 "2019년 실전문제연구단에서는 산업체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팀의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산업체 멘토와의 교류에 중점을 두었는데 각 연구팀이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여 매우 뿌듯했다"며 "남은 2개월 동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고, 2020년 실전문제연구단의 활약도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천리포수목원서 '하늘에서 본 태안' 기획전 열려

오는 2월 3일까지 열려... 드론으로 촬영한 32점의 사진



충남 태안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원장 김용식) 내 밀려가든 갤러리에서 '하늘에서 본 태안' 기획전이 오는 2월 3일까지 열린다. 드론으로 촬영한 32점의 사진은 천리포수목원을 포함해 장안사, 격렬비열도, 가의도, 내파수도, 꽃지해수욕장 등 태안의 주요한 관광지와 명소를 담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섬과 바다를 품은 웅장한 자연 풍경부터 독실체험, 만리포해수욕장 서핑, 반계리의 초록 눈까지 태안이 가진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현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시선을 끈다. 이와 함께 갤러리에는 15분 분량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상영되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에 전시한 사진과 영상은 태안군청 기획감사실 지현규 주무관이 지난 1년여 동안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것으로 총 88시간, 1,955km를 비행하며 태안의 97곳을 기록으로 남긴 자료 중 일부이다. 전시를 담당할 천리포수목원 이상훈 경영회계팀장은 "겨울철 수목원을 방문한 입장객들이 아름다운 태안의 주요 명소를 보고, 다른 계절에도 태안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한다"며 높은 호응을 전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한타 후원 내구레이스 '24시 시리즈' 2020 시즌 시동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두바이 오토드롬 서킷서 2020 시즌 개막전 격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가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내구레이스 '24시 시리즈(24H Series)'의 2020 시즌 개막전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두바이 오토드롬(Dubai Autodrome) 서킷에서 개최된다. 메인 레이싱인 '24시 시리즈 유럽(24H Series Europe)'과 '24시 시리즈 대륙(24H Series Continents)' 2020 시즌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벨기

에,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대륙을 넘나들며 전 세계 7개국에서 8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포르쉐 991', '람보르기니 우라칸', '메르세데스-AMG GT4', '아우디 R8' 등 글로벌 프리미엄 슈퍼카들이 참가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난도의 서킷을 주행하며 극한의 내구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개막전이 열리는 두바이 오토드롬 서킷은 한 바퀴에 5.9킬로미터이며 시작 한가운데

위치한 특성상 거센 모래 바람,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환경과 노면 상태 때문에 최고 수준의 타이어 내구성과 접지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첩한 코너링 성능과 완벽한 제동력 등 극한의 주행환경에서 드라이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레이싱 타이어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 최고 레이싱 대회인 CJ 슈퍼레이스 서킷한 아드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팀이 대한민국 레이싱팀 사상 최초로 '24시 시리즈' 도전한다. 송병배기자

## 한국효문화진흥원 옛날 옛적 한밭골 효문화이야기 발간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사업단에서 대전시민의 휴식 공간 보문산, 식장산에 열린 효문화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그림 동화 형식으로 엮은 '옛날 옛적 한밭골 효문화 이야기' 속에는 보문산 효자 나무꾼 이야기, 부모 봉양위해 하늘이 내리준 식기가 묻혀 있다 해서 식장산이라 이름 했다는 식장산 효자 이야기 등 대전 시내 곳곳에 내려오는 다양한 효행이야기가 담겼다. 글은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사업단장 김덕근 박사가 맡아 편집·각색하였고, 그림은 애니메이션전문가 한성대 이상원 교수가 구상하고 기획했다. 이 일의 실무를 맡았던 심정화 대리는 "앞으로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효문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효문화를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탕정면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경로당에서 직접 전달** 아산시 탕정면(면장 한대균)은 2020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이미용권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일, 매곡 1리를 시작으로 각 마을의 경로당을 방문한다.



**임마누엘교회, 배방읍 행복키움에 생필품 기부** 아산시 복수리에 소재한 기독교한국루터회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최성선)는 지난 7일,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에(공동단장 이선화, 오병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세트(6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조폐공사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참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 한국조폐공사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 취업준비생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조폐공사 직원들이 취업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충남대 '2019 CNU 우수강의 교수 특강' 개최** 충남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모델 개발과 우수강의 확산을 위해 8일 오후 2시, 충남대 영남관에서 '2019 CNU 우수강의 교수 특강'을 개최했다.



**한미음실버대학 '1박 2일 힐링캠프' 개최** 한미음실버대학은 지난 6일~7일 '노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1박 2일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 맞는 이번 캠프에 교사를 비롯하여 대전 충청권 어르신 150여 명이 부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 2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양곡기공협회, 이웃사랑 쌀 전달** (사)한국양곡기공협회 아산시지부(지부장 박주표)는 지난 7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쌀 20kg(100포) 약 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호텔·항공·여행 취창업 현장답사 프로그램'**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학과장 김근중)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인천 미려나호텔 및 청주공항에서 호텔·항공·여행분야취창업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덕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해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대덕구 회덕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순용)가 지난 8일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떡국키트 및 화장지 50세트 등 총 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나도 기생충학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협 기생충박물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채종일, 이하 "간협" 기생충박물관은 8일과 9일 양일간 "나도 기생충학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총 150분까지 총 2회) 진행했다. 건협 기생충박물관은 "앞으로도 '나도 기생충학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초의학의 이해와 과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남서울대 평생교육원 - (사)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 체육지도자 양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 평생교육원은 (사)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서울대 평생교육원장 이승길 원장과 (사)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장 김영희 회장 등 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사)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는 ▲체육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교육, 봉사, 연구활동 상호협



의 ▲평생교육원 자격증 과정 수행 ▲학점은행제 운영 상호 협의 등 지역사회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미래엔 서해에너지, 안전기원 결의 산행**

임직원의 화합과, 무사고·무재해 안전기원 결의

충남 서북부 5개시·군(당진, 서산, 예산, 태안, 홍성)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미래엔 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가 지난 4일, 경자년 한 해의 무사고·무재해를 결의하는 안전기원 산행을 실시했다.

산행에 참여한 미래엔 서해에너지 임직원들은 "무사고·무재해가 실현되는 2020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가스사고 위험요소를 사

전에 발굴해 차단하고 배관공사와 안전관리 부분의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무재해 사업장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가스사고 예방 의지를 결의코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직원들 간 서로 소통하고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한서대, 미국 CES 2020 혁신상 쾌거**

LINC+ 사업단 선정 이후 2018년부터 3년 연속 CES 참가

서산 한서대(총장 함기선) LINC+ 사업단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0에 참가한다.

한서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LINC+ 사업단에 선정된 이후 2018년부터 3년 연속 CES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CES 2020 혁신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한서대는 LINC+ 사업단장인 김현성 산학부총장의 주도하에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

제품개발 및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호평을 받았고, 2019년 CES 한서대 LINC+ 부스에는 해외 바이어와 방문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특히 가족기업인 ㈜리틀캐이 IOT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고양이 러닝머신인 "리틀캐이"가 CES 2019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스타 기업으로 부상했고, 국내외의 300여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사랑의 사다리밴드, 대덕구 비래동 경로당서 삼계탕 봉사** 대전시 SNS 8천명 봉사단체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 이정제)는 8일 오전 10시, 대덕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경로당에서 삼계탕 봉사로 사회적 효행을 실천했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건강백세운동교실' 운동강사 모집**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유지·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 사진)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유도를 위해 '2020년도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에 동참할 유능한 운동강사를 모집한다.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체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동강사 모집 접수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 까지이며, 선발 자격 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나 건강IN 홈페이지를 참조해 강습을 희망하는 지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백길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우선한 건강행태성 제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김종천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2020년 제1차 임시회 참석... 상정된 안건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 협의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8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

회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김정환기자

**중국 저장성 절강택달교육그룹 교직원, 벤치마킹차 백석대 방문**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절강택달교육그룹 교직원 50여 명은 8일 오전 11시, 대학 교육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대학 교육 관련 벤치마킹과 2020년 본격적인 유학생 송출을 위한 대학 교육시설 참관으로, 절강택달교육그룹 내 향주강남정수학원 정세인 총괄부원장, 송소유링 부원장

(熊小瑜) 등 50여 명이 방문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향주강남정수학원과 백석대학교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어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대학의 좋은 모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주강남정수학원 정세인 총괄 부원장은 "대학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백석대학교가 다양한 강점을 가진 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절강택달교육그룹은 중국 내 3개 지역에서 대학 등 3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교육그룹으로 2018년 6월 백석대학교와 협정을 맺고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백석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기고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의미



김덕만
신문방송전공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올해 들어서자마자 고위공직자 비리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완성됐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정부는 1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른바 오는 7월부터 공수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

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공수처 설치의 오래전부터 여야정당 공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현존 사정 기관의 혁신 차원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해 왔던 시간이지요.

그러나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치 중립, 수사 독립, 권력의 집중장악 등의 논쟁이 불거져 질질 끌려오다 드디어 법제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기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옥상옥'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권력형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경찰이 다른 부단없이 고유 역할을 맡아 전체적으로 사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길 기대합니다. 수사 기구를 다원화로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법국가 차원에서 사정 기능의 생산성 제고를 바랍니다.

이날 정부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개인이나 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공직자로 한정시켜 보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구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이 관리 또는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패행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의 범위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입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풀이켜 보건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이란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평계를 대 완전 배제했지요.

공수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청렴선진국에 조기 진입하길 기대합니다.

사설

음주운전, 습관부터 바꾸자

2018년 11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와 함께 면허정지(0.05%→0.03%), 면허취소(0.1%→0.08%)도 한층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음주단속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단속 첫날 대전지역에선 7건, 충남에선 9건이 적발된 바 있다.

'윤창호법' 통과로 관련법을 한층 강화하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과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끝날 때 전복의 모습은 어떠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40% 정도인 실정인 데다 '윤창호법'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동안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는 여전히 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맥주 1~2잔인데 별...'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또 술을 조금 마셨는데 다리 기사가 안 온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수 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행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 2020년 새해에는 이 습관을 고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군사적 긴장 높아지는 중동 정세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장에군 사령관을 드문 공습으로 살해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를 확인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등 4개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중이에서 재의 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긴급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교민 철수 등 단계별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확인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은 당연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수송되는 길목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미국이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상선의 보호와 안전한 항해를 위해 파병의 명분은 충분하다. 마침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난해 8월 출항한 강감찬함이 있는데 소말리아 이베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감찬함은 6개월 단위로 임무를 교대하는 일정상 다음 달 왕진함과 교체될 예정인데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사흘 정도 걸려서 파병 결정이 날 경우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강감찬함 파병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여할 경우 중동으로 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정부의 고심이 깊은 것은 파병을 했을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정부가 휩쓸릴 위험성도 있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이 요구할 경우 파병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다. 과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파병 대신 해협 방위에 기여했던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병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동지역 교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익에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의 일촉즉발이 기폭이나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기고

겨울철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해야



구혜린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과

겨울철에는 작은 사고에도 큰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고 해가 빨리지는 동절기에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지며 추운 날씨로 인해 빙판길 도로 결빙 구간이 잦아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동절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지역을 중점관리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별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순찰차 거점근무 및 구간순찰을 통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간도로 통행 시 밝은 색상

의 옷을 착용하고 다닐 것을 당부하는 등 경찰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들과 직접 만남을 실시, 112 만급 순찰을 통한 교통사고 사례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경찰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함양을 통하여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보령시평생학습관 시루공방 · 진로교육 유공 체험처 선정

웹툰 교육 및 요리교실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인정받아

보령시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과 시루공방이 각각 웹툰 교육 및 요리교실 등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아 진로교육 유공 체험처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공 체험처 선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진로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체험자를 선정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령시는 진로 탐색활동 협력 유공으로 2개소가 선정됐다.

보령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16년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선정된 이후 63회에 걸쳐 1961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툰진로체험 및 웹툰작가 특강을 운영하여 웹툰과 관련된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체험하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웹툰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북면·오천면 등 평생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왔다.

전통음식과 관련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루공방대표 송애자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꿈길' 기관으로 등록돼 보령, 부여 등 충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400회에 걸친 요리 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에 앞장서 왔다.

김선미 교육체육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체험하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올해 공공기관 2만5600여명 신규 채용”

8~9일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역대 최대규모 141개 기관 참여

올해 공공기관이 지난해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2만5600명을 신규 채용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해 "지난해 2만3284명보다 2369명 증가한 2만5654명을 신규 채용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고갈 연구인력, 에너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공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3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생명, 안전, 형평 등 사회적 가치 실

현 분야의 채용을 수시로 증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4월 중 완료되는데 비리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입된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2023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구직자들은 모의 면접, 직업기초능력 검사, 한국사 모의 시험, 인성검사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취업 성공전략, 블라인드 채용 전략 특강,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토크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정복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외부 필진의 읽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농어촌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보수 700만원 지원

충남도 편의시설·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등

충남도가 8일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 비용 200가구 700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

에 대해서도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장애인·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노후 주택으로 불편을 겪는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개·보수를 통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이하로, 농어촌장애인 등록 장애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이다.

우선 선정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다.

주거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으나,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인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전투데이

## 논산시 기자협회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교례회

백제 계백 대장군의 호국[護國]의 충의정신[忠義精神]과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도[禮道]가 사회정신의 기본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씀의 고장 논산[論山]을 사랑하는 귀하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청에 출입하는 15개 언론사 주재기자로 구성된 논산시 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성구 회장 [대전투데이 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직필[直筆]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정론 [正論]의 지향을 다짐 하고자 합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2020년 1월

논산시 기자협회 회원일동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맞이 교례회(다과회)

◆ 일시 : 2020. 1. 10(금) 오후 14:00    ◆ 장소 :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

충남일보[최춘식], 중앙매일[김종원], 계룡일보[권기택], 대전투데이[김성구], 충남투데이 [이상현], 내외뉴스통신[조영민, 송호진], 브레이크뉴스[김정환], 굿모닝논산[김용훈], 논산 인터넷뉴스[김혜순], 뉴스피플아이[주대환], inbc[박준홍], 논산포커스[서준석], 충청메세지 [조성우], 충청종합신문[김백수], 충청24시 뉴스[최창열]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십시오. 사무국장: 010-7156-8007